

경계에 놓인 사유...한국화 조형 가능성 탐색

CULTURE

2025년 3월 11일 화요일

김대원 개인전 내달 22일까지 동명동 수하갤러리

독창적 세계 구축...‘시간의 결’ 주제로 35점 작품

그의 화면은 거친 선과 먹의 번짐을 통해 순진무구한 정신세계를 감구한다. 전통 남화의 본령인 수묵담채의 산수화에 머물다 실경산수를 통해 진술하고 투명한 정신세계와 자유롭고 대담하며 명료한 필세로 그만의 독창적 화면을 일구었다. 사실적인 묘사로부터 거시 없이 진술하고 투명한 정신세계를 추구하면서 거침없고 활달한 필치로 활력의 화면을 선보인다. 여가다 즉흥적인 필치에다 다채롭고 강한 색채들을 만날 수 있다. 줄곧 추구해왔던 전통 수묵화의 현대적인 변용에 머무르지 않고 현대적 수묵화를 모색해온 것이다.

한국화의 흐름 속에서 독창적인 작품세계를 구축해온 김대원 작가(76·전 조선대 교수)가 그다. 그가 모처럼 개인전을 마련했다. 수묵화의 변화와 실험의 흔적을 담고 있는 개인전은 지난 3월 개막, 4월 22일까지 광주 동명동 소재 수하갤러리에서 ‘시간의 결’(Traces of Time)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출품작은 ‘그토록 아름답던 날’, ‘표리의 농염’, ‘공

작의 시선’, ‘부서버려야 하는 변민’, ‘돈황의 혼’ 등 35점.

이번 전시는 작가의 1997년부터 2024년까지의 작업을 조명하는 동시에 이전 시기의 대형 수묵화 중심의 작업에서 점진적으로 확장된 조형적 실험과 새로운 매체의 활용을 살펴볼 수 있다. 작가의 전통적인 수묵 기법을 기반으로 과슈(Gouache·수용성의 아라비아고무를 섞은 불투명한 수채물감) 등 다양한 재료를 접목하며, 한국화의 조형적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주력해왔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대형 작품이 아닌 소품 중심의 작품 구성을 통해, 예술적 변화와 실험 과정을 더욱 밀도있게 전달하고 있다.

특히 2024년 전시의 연장선상에서 기획된 이번 전시는 지난해 여름 열린 개인전 작품들이 1979년부터 1996년까지의 대형 수묵화 작품을 조망했다면, 1997년 이후 작가의 변화와 확장을 조명하며 한국화의 경계를 집중적으로 조망하는 자리다.



‘그토록 아름답던 날’

작가는 전통 수묵기 때는 한국화의 기본기를 충실히 다진 뒤 수묵담채화로 실경산수를 추구했으며, 전환기 수묵기 때는 동물을 해학적으로 표현했다. 이 무렵은 주로 옛 이야기를 연상하게 하는 민화풍의 작품이 주류를 이룬 데 이어 현대 색채회화

기 때는 비구상 화법을 구사했다. 작가의 회화가 내 용적인 면에서 더 강렬해지던 때로 설명된다. 얼핏 추상같으면서도 수묵 기법이 공존한다는 이야기다. 형태적으로는 캔버스에 아크릴과 과슈를 재료로 사용하는 것이 특징으로 꼽힌다. 그러다 2017년

이후 다시 종이와 수묵채색으로 회귀한다. 한국적 미감이 더 농익어 나타나는 때로 이해하면 된다. 그래서 그의 화면에는 전통과 현대, 구상과 추상, 수묵과 채색이 공존해 나타난다. 수묵이 화려해진다 다 색깔이 강해진 듯한 느낌을 안겨주는 독자 형태의 작품들에도 집중했다.

김대원 작가는 전남 목포 출생으로 조선대 사범대학 미술교육과와 조선대 대학원 미술학과를 졸업, 1979년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30여회의 개인전을 열었고, 다수의 국내외 전시에 참여하며 한국화의 현대적 조형성을 탐구하는 작업을 지속해 왔다. 국제수묵비엔날레와 광주시립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이스탄불, 뉴욕, 도쿄, 파리 등 다수 단체전에 참여했으며 의재허백련상 본상과 ‘미술세계’ 올해의 작가상, 전남도 문화예술상, 현산미술상 등을 수상했다. 대한민국미술대전과 광주시립미술대전 및 무등미술대전 심사위원장 등 각종 미술대전 심사위원 및 운영위원을 맡은 바 있으며 조선대 미술대학 학장과 부총장, 중국 하얼빈사범대학 예술원 초빙교수 등을 역임했다.

한편 수하갤러리는 향후 국제기획전인 ‘김대원의 한국화: 전통과 현대의 공존’ 전 등을 구상 중이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아카데미가 선택한 영화’ 광주극장서 만나요

5관왕 석권 ‘아노라’·각색상 ‘콘클라베’ 상영 화제작 ‘에밀리아 페레즈’·여성극장 소재작도

최근 열린 ‘제97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화제를 모은 수상작들이 광주극장에서 개봉한다. 화려한 영상과 긴박한 전개로 고평점 스티리러라는 호평을 받으며 각색상을 거머쥔 에드워드 버거 감독의 ‘콘클라베’는 지난 5일 개봉해 절찬리 상영 중이다.

로버트 해리스 작가의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한 영화로, ‘콘클라베’는 교황 선거를 뜻한다. 교황의 죽음 이후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시작되고, 로렌스(랄프 파인즈)는 단장으로서 선거를 총괄하게 된다. 한편 당선에 유력했던 후보들이 스캔들이 휘말리면서 음모와 탐욕이 수면 위로 드러난다.

비타칸 내부에서 벌어지는 성직자들의 음모와 암투를 다룬 작품으로, 랄프 파인즈, 이사벨라 로셀리니 등 출연진의 연기 화음이 압권이다.

지난해 제77회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에 이어 올해 아카데미 작품상과 감독상, 여우주연상 등 5개 부문에 석권하며 최고의 주목을 받은 ‘아노라’는 7일부터 상영 중이다. 신본 상상을 꿈꾸는 뉴욕의 스트리퍼 아노라(미키 매디슨)가 철부지 러시아 재벌 2세 이반과 결혼식을 올리게 되며 벌어지는 소동극을 다뤘다.

이만자이자 성 노동자인 아노라를 통해 계급 사회를 풍자한 블랙코미디다. 여우주연상을 받은 아노라 역의 미키 매디슨은 20대 배우로서 유력한 후보로 꼽혀지던 ‘서브스탠스’의 데미 무어를 제치고 수상해 이변을 일으켰다.

칸영화제 2관왕을 시작으로 골든글로브 4관왕, 아카데미 2관왕을 달성한 화제작 ‘에밀리아 페레즈’는 12일 개봉을 앞두고 있다.

여자로 다시 태어나고 싶은 갠단 보스와 아무것도 몰랐던 그의 아내, 새로운 삶을 선택할 변화사가 얽힌 파격적인 뮤지컬 영화로, 스티리러와 코미디, 멜로 등 장르를 넘나든다.

여성극의 살아있는 역사와 예술성을 조명 한 다큐멘터리 영화 ‘여성극장 굶어질듯 이어지고 사라질듯 영원하다’는 19일 개봉한다.

여성극장은 1950년대 한국전쟁 시절 국민들에게 위로를 선사한 최초의 뮤지컬 형식 전통 예술로, 현재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영화는 3세대 여성극인 박수빈 황지영이 지난해 방영된 인기 드라마 ‘정년이’의 실제 주인공이자 1세대 여성극인인 조영숙과 함께 전통과 현대의 경계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다. 여성극장을 향한 세대를 뛰어넘는 열정과 전통예술 계승의 가치를 전한다.

김대경 기자 alsqsl94@gwangnam.co.kr



‘ACC 직군탐색 과정’ 조선대 확대 운영

문화예술분야 직군 소개...일반인 대상 4~11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 당장 직무대리 김상욱)의 ‘ACC 직군탐색 과정’이 올해 산학협력과정으로 전남대에 이어 조선대까지 확대 추진한다.

‘ACC 직군탐색 과정’은 문화예술분야의 새로운 직업과 직군을 소개하는 강좌로 산학과정, 단·장기과정으로 구성된다. ACC는 청년 예술인 및 지역문화육성 협력을 목적으로 급변하는 문화예술 현장의 창의적인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고 학생들의 진로 선택 지원 및 관련 직업 분야 현장 실무 이해를 돕고자 한국고용정보원과 함께 ‘ACC 직군탐색 산학과정’을 개발했다. 전남대는 지난 2023년부터 3년 연속 산학협력과정으로 ‘ACC 직군탐색 산학과정’을 채택해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조선대가 새로 추가됐다.

특히 지난 2년 간 전남대에서 진행된 수업은 학생들로부터 신진직군의 체계적인 이론과 현장 실무 경험, 자격증 등으로 관련 직무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올해부터는 조선대도 1학기부터 산학협력과정으로 ‘ACC 직군탐색 산학과정’을 채택했다.

올해 1학기에 진행되는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의 산학협력과정 교양과목은 ‘문화예술 경영의 이해’다. 첫 수업은 오는 25일 전남대 진리관에서 한국고용정보원 김중진 연구위원이 ‘문화예술 분야 직업세계 이해’라는 주제로 선보인다. 이어 4~5월 까지 음악비즈니스산업 전문가(이준상 칠리뮤직 코리아 대표), 융복합문화기획자(권태현 독립큐



2024 ‘ACC 직군탐색 장기과정’ 융복합문화기획자 과정 수업 현장.

레이터) 등 현장전문가 강의가 총 6회 진행된다.

조선대 본관에서 진행되는 글로벌 인문대학 교양과목은 ‘21세기 글로벌 리더’와 ‘언어와 디지털 소통’으로, 5월 13일 ‘오디오북내레이터’를 주제로 한 현장 전문가 특강을 시작으로 문화예술 분야 직업 세계 이해(김중진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아이디어컨설팅(박성연 크리에이티브 대표·양정은 크리에이티브 팀장), 사운드디자인(허동혁 작곡가·음악감독) 등 강사가 총 6회 열린다.

‘ACC 직군탐색 과정’에는 산학협력과정 외에도 문화예술 분야 전공 대학생과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분야별 진로의 이해를 위한 직군별 초급 교육과정도 마련돼 있다. 교육은 오는 4~11월까지 단기 및 장기과정으로 나눠 열린다. ‘ACC 직군탐색 산학과정’은 해당 대학 수강신청을 통해 진행되며, 단기와 장기과정은 ACC 누리집(www.acc.ac.kr)을 통해 모집한다.

김대경 기자 alsqsl94@gwangnam.co.kr

내일의 꿈을
지금 시작합니다

종합인재전문기업

(주)다원

최저가
인쇄소평률 **1688-9959**

(주)다원은
성실과 신의를 기업이념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풍요로운 미래를 위한 보다 큰 의욕,
그리고 새로운 공지와 자부심으로
정성의 땀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다원인쇄물루션 **검색**